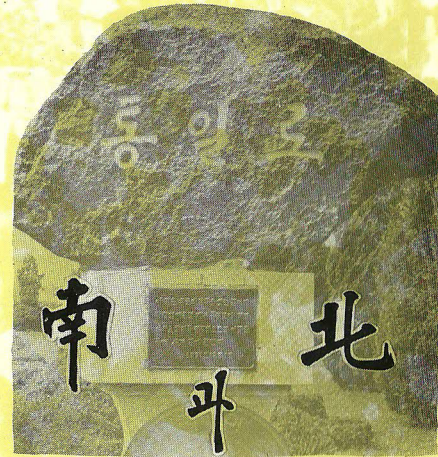


부산시민의날 경축

제 6 회 釜山舞臺藝術祭

창작 무용극

겨레의 메아리 [離散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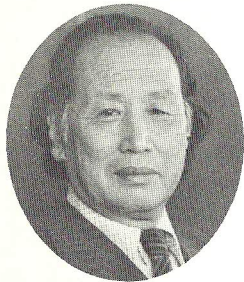
舞踊公演

총지휘: 배혜경

안무: 황무봉

주최: 부산시민의날행사추진위원회·예총부산지부
 때: 1983 10 월 5 일 4 시·7 시
 후원: 부산직할시·한국문예진흥원
 주관: 한국무용협회 부산지부
 곳: 부산시민회관 대강당

□ 人事말씀 □



韓國藝總釜山支部長
金昌培

더없이 풍요한 '83년의 가을을 맞이한 때를 같이하여 부산무대예술인들이 한해 동안 가꾸고 거둔 수확인 기량을 선보이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文化藝術의 發展은 반짝하는 힘에 의하거나 他律的 作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藝術人의 끝없이 샘솟는 創作意慾과 活動하고자 하는 意志와 創造에의 혼이 엉키고 이를 뒷받침 해주는 여건 조성이 밑받침이 될때라야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볼 때 한 지역의 독특한 文化圈 形成의 핵은 이와같은 힘이 축적되고 확대되어야만 이루어 지는 것이며 지역은 물론이고 한 국가의 전체의 文化藝術發展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지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이 釜山舞臺藝術祭가 해를 거듭해 가면서 개최되는 의의도 여기에서 부터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完成에서 더높은 수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完成으로 향하고자 하는 意志와 또 도약과 발전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였습니다. 釜山舞臺藝術人 스스로의 역량과 作品 공연을 원칙으로 삼은 것도 그렇고, 각종 공연별 특성과 개성을 살려 나열식으로 행사를 꾸민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도한 만큼 성과를 거두기에는 그 연륜이 짧고 주변조건이 여의치 않아 기대치까지 도달하지 못한 감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한히 뻗어갈 수 있는 가능성과 밑뿌리를 내린 것만 하여도 큰 수확이라 해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만큼 수준에 오를수 있고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것도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내보인 증좌라 해야 하겠읍니다. 그래서 점차적인 발전의 토양을 기르고 이 행사가 커가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다함께 힘쓰야 하겠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술인 스스로도 참으로 개성있고 보다 수준높은 作品 으로 부산최고의 무대를 만드는데 주력함과 아울러 이러한 무대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행정당국은 물론 주변의 여러분의 협조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劇舞踊을 按舞하면서



무용학원장
황무봉

“이산가족”의 내용으로 제6회 무대 예술제 무용공연 작품이 선정되면서 TV 영상과 지상으로 온 국민에게 가슴깊게 감동과 감격을 주며 다시 또 보여준 쓰라린 지난 역사의 아픈 사연들. 60분에 가까운 극무용으로 작품화해 보았다. 잘못 생각하면 신파극 또는 무언극이 되지 않을까? TV 화면만큼 효과가 있을까 하는 염려속에서 조심스럽게 그런 분위기 감흥 아닌 다른무대. 무용적 표현효과를 연구, 모색 끝에 음악은 作曲家 박범훈氏께 의뢰하여 많은 시간을 함께 소비했다.

체험인 일제침략, 붉은 남침, 亡命, 이산가족, 南과 北의 분단 우리 민족의 서러움이며 애한이기에 무용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이 江山에 침략과 수난부터 광복과 또다시 붉은 남침에서 統一의 염원만 남긴 채 부흥과 번영의 오늘까지를 作曲家께 부탁했고, 구성 안무했다.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줄거리인것 만큼 작품을 대중적으로 갖고 가야하기에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감동을 줄수 있고 이산가족의 만남처럼 그리움, 애절한 사연속에 출연진도 연습도중 수차례 눈물을 적셨다. 극소액의 제작비와 주위의 비협조적인 짧은 연습과 시간. 그러나 출연자들의 희생과 고생, 사명감 속에 안무자와 정신적 만남이 되어 모든 浮生, 피로를 잊고 幕이 오르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다. 어려운 여건속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과 作曲·박범훈선생, 조명·유경환, 의상·정선 선생님께 공연의 성과를 불문하고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를 드리오며 이 고마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釜山舞台藝術祭 行事概要

이 行事은 1978년 7월 21일 市民의 愛郷心 高취를 爲하여 行한 忠烈祠 淨化事業 이 착공된 후 이를 記念, 그 意義를 높여 선양하는 뜻에서 釜山市 주최, 藝總釜山 支部 주관으로 가진 「忠烈祠 淨化事業竣工記念釜山藝術祭」를 계기로 釜山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순수무대예술 행사로 정착해온 것이다.

이 행사 의 기본 뜻은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지역사회의 文化藝術 發展을 촉진하고 특히 釜山舞臺藝術의 活動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래서 그 다음해 부터 「釜山舞臺藝術祭」로 行事名을 바꾸고 舞臺藝術 分野인 國樂音樂舞踊演劇演藝 科 트가 參加 公演을 가져왔다. 특히 이 舞臺藝術祭는 釜山에서 活動하는 舞臺藝術人 스스로의 능력과 손으로 만든 순수 창작품을 무대에 올린다는데 높은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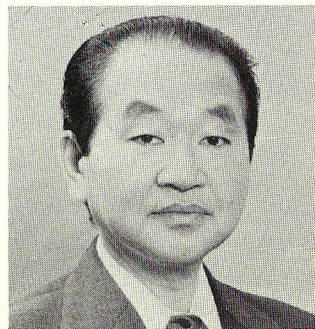
그러나 아직까지 개최 年輪이 짧고 바탕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획 하였거나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人내심을 가지고 끈기있게 지켜보는 애정이 앞서야 하고 주변 의 힘이 보태어 져야 하겠다. 어렵대도 행사비 의 확보가 제도적으로 되어야 할것이 긴박한 과제이고 개최일자 가 고정되어야 할 차제에 놓여 있다.

다행히 文藝振興院에서 行事에 대한 의의를 깊이 認識하여 배려를 해주었고 市民 의 관심도가 어느정도의 水位에 올라와 있다. 앞으로 거듭되는 공연을 통해 틈서리 있는데는 다듬고 문제점은 점차 개선 보완하여 부산무대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최고 무대로 부상시켜 가도록 여건 조성 에 다함께 힘쓰야할 여지는 남아 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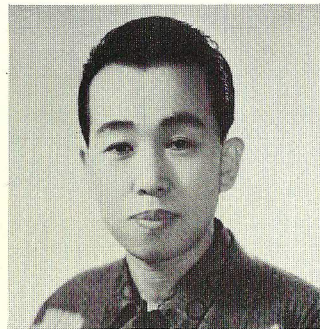
스

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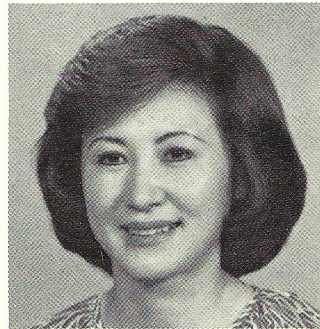
| | | | | |
|--------------------------------------|--|--------------------------------------|---------------------------------|--------------------------------------|
| 기 구 음 조 의 소 속 미 | 획 안 무 악 명 상 도 구 음 술 | 배 황 박 유 정 김 황 이 | 혜 무 범 경 성 조 진 | 경 봉 훈 환 선 만 현 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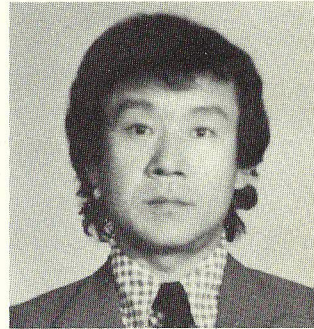
吉川仁



정무연



김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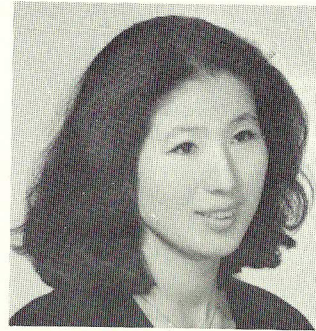


이영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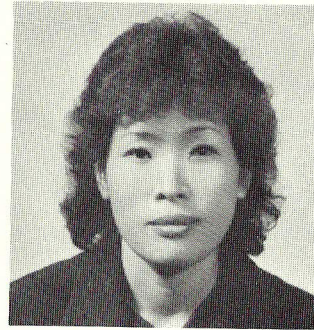
양 정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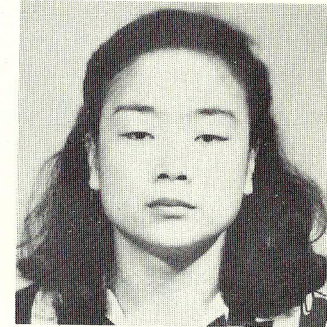
이 지 은



양 현 숙



이 성 희



제 6 회 부산무대에술제

창작무용극

겨레의 메아리

제 2막 4장

기 획-배혜경
구성·안무-황무봉
작 곡-박범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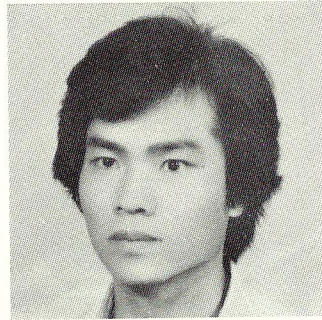
한반도 南과北 四十余年. 긴 세월 뿔뿔히 헤어져 못
만난 부모형제, 그리고 친지이웃들, 다시 만난 이산가
족찾기, 피어린 지난 일 한맺힌 사연되새겨 다시 만나
외쳐 부르는 그리운 이들이여. 목이 메여 찾는 소리가
용광로 불꽃처럼 타오르는 우리 민족의 메아리여. 평

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江山에 우리의 소원, 민족의 염
원인 통일을 이루세.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찾아든 日
帝의 침략무리들 수많은 희생과 투쟁속에 되찾은 光復,
그때의 기쁨 환호성 채 가시기 전에 붉은 공산집단에
의해 분단된 南과北. 生地獄과 같은 지난 6. 25 동란
피난살이 속에 찾아든 이별의 쓰라린 고통 속에서 우린
원한의 휴전선을 언제나 무너뜨리고 自由로운 몸으로
하나가 될꼬. 來日을 기약하는 統一과 平和위해 우리
모두 한마음 하나로 뭉쳐서 건설과 번영의 횃불 들고
전진 또 전진하세. 타오르는 불꽃처럼 우리 겨레의 함
성의 메아리가 온 누리에 평화롭게 울려 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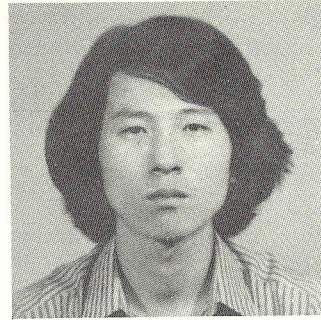
김 주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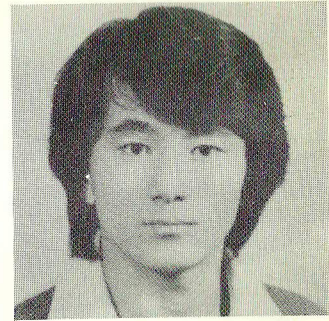
김 성 근



이 종 근



최 찬 열



극 무 용

“겨레의 메아리”

- 2막 4장 -

○서막

만 남

〈아이고, 아이고〉

●제 1 막

● 1 장 강산아 !

- ㄱ. 아름다워라
- ㄴ. 일제침략

● 2 장 조국아 !

- ㄱ. 광 복
- ㄴ. 붉은남침

●제 2 막

● 3 장 38선아 !

- ㄱ. 북 녀 땅
- ㄴ. 떠나는 사람 부르는 소리
- ㄴ. 만 남

● 4 장 빛이여 !

- ㄱ. 우리의 염원
- ㄴ. 번영의 불꽃

출 연 자

〈여〉

배혜경
김지영
양정선
이지현
이성영
이영미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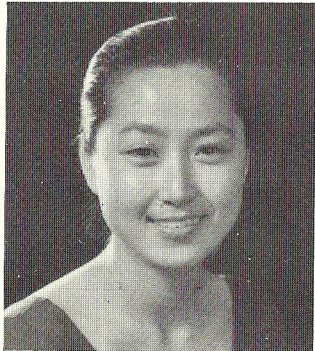
정무연
길川仁
이영주
김성성
이종돈
이서보
최찬

〈군 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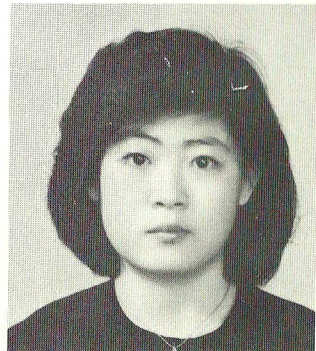
최준옥
이을령
조미송
최윤실
김현미
정말숙
김기련

정임선
이은경
이미정
박현수
박미수
우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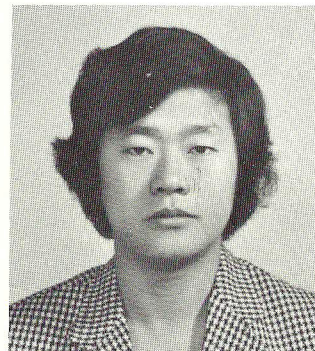
이정화
김현실
박영희
박미영
김미경
김경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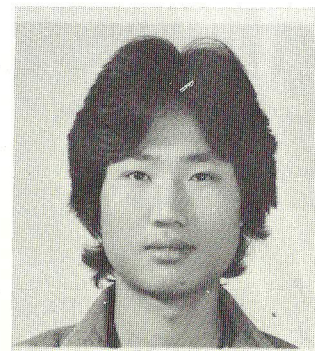
이 영 숙



이 미 선



이 돈 · 희



서 보 연